

홍보대사 '디타 폰 티즈' 방한 VCT 상담소와 감염인 지원

화장품회사 '맥' 에이즈 기금 1억원 전달

글 서경훈

에스티로더 그룹의 화장품 브랜드 맥 코스메틱은 국내에서 조성한 에이즈 기금 중 1억원을 지난 3월 3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이 행사를 위해 맥의 홍보대사인 벨레스크(스트립쇼 위주의 버라이어티 쇼) 스타 '디타 폰 티즈'(Dita Von Teese)가 방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국내에서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 지원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HIV 무료 익명 검진 상담소의 연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에이즈 감염인의 간병서비스와 재가복지에 지원될 예정이다.

'맥'은 1994년부터 '비바 글램 립스틱' 판매 수익 전액을 에이즈 펀드로 조성, 현재까지 총 86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은 전 세계 700여개 단체를 통해 에이즈 감염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맥은 2002년부터 작년까지 총 1억8천여억원의 기금을 UNDP(유엔개발계획),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에 전달했다.

디타 폰 티즈는 "비바 글램 립스틱 하나를 사면 그 금액으로 인도에 콘돔 1천개, 아프리카에 콘돔 575개를 지원해줄 수 있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2만명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콘돔을 꼭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맥의 홍보대사 디타 폰 티즈가 대한에이즈예방 협회의 콘돔이 콘순이와 함께 콘돔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